

무주군, 지역문화재활용 공모 선정

별빛과 함께하는 문화재 풍류·무주의 문화유산 스토리 탐험대·무주향교의 나날·적상산성 生生 4개 사업

무주군이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2022년도 '지역문화재활용 공모사업'에서 4개 사업이 선정돼 국·도비 2억 4,610만 원을 확보했다.

지역문화재활용 공모사업은 지역 문화재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문화콘텐츠로 활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무주군 문화재 이행사업인 '별빛과 함께하는 문화재 풍류(風流)'와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인 '무주의 문화유산 스토리 탐험대'가 2022년 사업으로 처음 선정이 됐으며 향교서원문화재활용사업인 '무주향교의 나날'과 생생문화재활용사업 '적상산성 生生(적상산성 同行)'이 3년 연속 선정이 되는 영예를 안았다.

무주군청 문화체육과 김정미 과장은 "우리군은 품격 있는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지역문화재활용 공모사업이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엔 확보한 국·도비를 기반으로 더욱 풍성한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문화재 이행사업으로 선정된 '별빛과 함께하는 문화재 풍류(風流)사업'은 1박 2일간 '밤길산책'과 '툰 밤마실길', '무주 이야기보따리', '별빛에 비추는 산수화' 등을 테마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물 제2129호 무주한공투와 무주향교 대성전, 오산리 구상화강림마당, 무주 지전마을 등 담장이 주 자원으로 활용이 되며 여기에 김환태문화관과 최복미술관 등의 주변 문화시설을 연계할 방침이다.



무주반딧불축제 무주향교 전통문화 체험.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인 '무주의 문화유산 스토리 탐험대'는 스토리텔링식 교육 진행과 지역기반 콘텐츠 체험을 통해 '무주다움'과 '무주스러움', 그에 걸 맞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별빛과 함께하는 문화재 풍류(風流)사업'과 '무주의 문화유산 스토리 탐험대' 모두 이번 공모를 통해 처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3년 연속 선정이 된 '무주향교의 나날'은 향교·서원문화재를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무

주유생! 유생플렉스', '한식대첩 시즌 3', '양사재 음악회', '무주마실'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적상산성 生生(적상산성 同行)'은 사적 제146호 적상산성과 전라북도 기념물 제88호 적상산사고지 유구를 활용한 사업으로 무주군은 '문화유산 체험교실'과 '적상산성 스토리' 등 4개 프로그램을 비롯해 교육+체험, 인형극, 탐방, 역할극, 음악회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당북초등학교는 최근 동영상대회로 치러진 '제12회 미술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초중등부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당북초, 미술전국국악경연대회서 수상

초중등부 단체부문 대상

당북초등학교(교장 권영숙)는 최근 동영상대회로 치러진 '제12회 미술전국국악경연대회'에서 초중등부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는 총 8개 팀이 참가, 당북나래 국악관현악단이 '소리놀이 1+' 곡을 선보였다.

당북초에 따르면 지난 6월 17일 비대면 동영상대회로 개최한 제8회 곡성통일전국 종합예술대진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곡성통일전국종합체부분의 경우 연령대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는 대회로 당북나래 국악관현악단은 성인팀을 포함한 총

19개팀 중 6위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홍운 교장은 "단순히 기능을 익혀 입상을 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즐겁게 예술을 배우고 행복한 삶의 주인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러한 가운데 멋진 결실까지 맺어 기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당북초등학교는 현재 학생들에게 국악교육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도교육청 '오케스트라 운영학교'를 시작으로 군산교육지원청 '군산형 특별공모사업', 전라북도 '전북의 별 인재육성 사업', 군산시 '농어촌 방과후 음악교육' 등 교육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주문화재단, '도시갤러리, 전주' 전시

1~30일 동문거리서 무료 관람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10월 한달간 동문거리에서 '도시갤러리, 전주' 전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시갤러리, 전주'는 시각예술작가의 창작여건 개선과 전시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1년에는 전주 연고의 시각예술가 20인을 선정, 총 30일 간 40작품을 전시한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사진 예약 없이 현장방문으로 가능하다.

이번 전시는 시각예술작가에게는 작품유통의 기회를, 시민들에게는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일상에서 미술작품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유화, 한국화, 묵화 등 다양한 장르, 다채로운 예술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흔치 않은 경험을 선사하고자 한다. 직장인들

이 퇴근 이후나 가족들과 저녁 여가활동으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13시부터 19시까지 운영된다.

한편, '도시갤러리, 전주' 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침체한 동문예술거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전주문화재단이 추진하는 2021 생활문화거점 지원사업인 '월간 동문: 문화로 동문 한 달' 기간에 동시에 진행된다.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 관계자는 "과거 전주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동문예술거리에서 스무 명의 작가들의 미술품을 전시하게 돼 뜻깊은 시간이다"며 "10월에 동문거리에서 마주하게 될 뜻밖의 미술 여행을 즐겁게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7)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민화작가 최주희 '바라는대로 이루어진다'展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오는 10월 24일까지 박물관 분관인 재미갤러리 2층 전시관에서 민화작가 최주희 개인전 '바라는대로 이루어진다'展을 개최 중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 작가는 한국민화 공모전 특선, 전라북도 전통공예대전 특선, 전라북도 미술대전 대상, 전북온고을 미술대전 특선 등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다. 한국민화 진흥협회 국제 초청 교류전, 전북 민화 회원전 등 다수의 단체전 및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 전북 민화회장 및 군산리담민화협회장을 지내고 있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다산과 다복, 청렴함을 상징하는 '연화도', 장수를 상징하는 '십장생',

신혼방이나 안방 장식용으로 쓰이는 '화조도',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괴석모란도' 등 상징성을 담은 민화작품 20여점이 전시된다.

최주희 작가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민화와 함께해온 시간동안 느꼈던 행복과 설렘을 많은 분들과 나누어 힐링 할 수 있도록 이처럼 소중한 나만의 시간을 함께하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미갤러리에서 올해 현재까지 서양화, 문인화, 민화 등 8회의 다양한 장르의 개인전 및 단체전을 개최, 이제 2회의 전시를 남겨두고 있으며 남은 기간동안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술관람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정읍시, 방방곡곡 문화 공감 공모사업 선정작품 연극 '웃픈 3일' 공연

정읍시는 오는 9일 오후 3시와 7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연극 '웃픈 3일'을 선보인다.

'웃픈 3일'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수작품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기획공연으로 준비됐다.

이 작품은 극 주인공의 죽음을 통해 삶의 소중함과 진정한 가치, 가족 간 이해와 참된 소통의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연극이다.

경험한 셀러리맨인 주인공 진현의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죽음 후 장례식에 찾아온 가족과

지인들의 사랑, 연민, 미련, 죄책감을 웃음과 따뜻함으로 그려낸다.

풀지 못했던 가족 간 소통의 이야기가 주인공의 죽음 뒤에야 풀려지는 과정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참된 소통의 의미를 되짚게 한다.

작품의 연출은 '슬기로운 감빵생활', '시크릿 마더'에서 맛깔 나는 감초 연기를 선보인 배우 안상우가 맡았다.

주인공 진현역에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황배진 역의 황배진이, 직장 상사인 백일성 과장과 백성자 과장 역은 개그맨이자 연극배우인 홍순목과 배우 이도연이 출연한다.

또한, 대한민국 연극계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실력과 연극배우 김옥(아버지 역)과 금수현(금란 역), 이은미(고모 역), 이태규(동우 역)가 작품의 몰입을 이끈다.

이번 공연은 8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전 좌석 8천원이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65세 이상, 학생(초·중·고·대)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입장권은 티켓링크를 통해 27일부터 진행 중이며, 자세한 공연 정보는 정읍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작업복 단체복

안전화 안전용품

판촉물 기념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명찰, 로고 각종 인쇄

대표전화 063)227-4610 N A V E R 은혜상사(주) Q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